



食糧節約에 크게寄與

崔 景 善

〈韓國能率協會 副會長〉

食生活은 人類의 最初 · 最終의 問題

「食糧 문제가 人社類會의 最初의 問題인 同時에 最終의 問題이다」라고 하는 것은 食糧과 人間과의 不可分關係를 짚어, 그러면서 切實하게 說明한 金言이다. 이 地球위에 人間이 棲息하고 있는 限 食糧 또는 이에 代替되는 먹을 것이 그 무엇보다도 優先되는 問題가 아니 될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個個人 한 사람이 呱呱의 産聲을 올린 瞬間부터 한 平生의 生命이 다해질 때 까지 最少限度의 營養을 끊임없이 攝取해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인가 먹어야 하는데 그것이 主로 直接間接的인 食糧을 原料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이 人口의 增加가 食糧增産을 앞지른 사실이고 더우기 앞으로는 人類의 保健思想의 向上과 醫藥의 發達이 사람들의 平均壽命을 높이므로써 食糧不足率이 漸增 해질 것이 必至의 危脅이다.

일찍이 人口에 대한 理論의 創始者인 말더스는 「人口原則에 관한 一般論」이란 그 有名

한 人口論의 第1版을 1797년에 또 第2版을 1803년에 出版(그後 6版까지 내었음) 하므로써 內容의 完璧을 告하였던 것이다.

말더스 人口論은 “세계 人口가 幾何級數的으로 늘어나는데 食糧은 算術級數的으로 밖에 增加할 수 없다”는 것을 前題로 하여 貧困과 惡德을 人口原則의 必然的 結果로 보았다.

그러나 말더스 人口論 以後-오늘까지 2世紀를 經過해오는 동안에 人類는 말더스 人口論이 指摘하고 暗示한 것처럼 食糧不足의 困境에 빠지지 않는 않았다. 그는 主로 人智의 發達이 적은量의 食糧으로 많은 食糧의 效果를 거둘수 있었고, 食糧의 範圍가 田畝에서 생기는 穀物만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廣範하게 動·植物分野에 점점 擴大하였음은 勿論, 海洋에서 産出되는 海洋食物도 계속 增加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편 적은 量의 食糧으로 많은 食物의 效果를 거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食糧의 테두리가 넓어져 왔기 때문에 約 2世紀前 말더스가 主張한 것과 같은 「食糧不足이 人類를 危脅하는 事態」가 빚어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人類社會를 위해서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豫想以外的 多幸이 人類社會에 주어질 것이라는 保障은 없다. 人智가 食糧供給不足에 挑戰을 계속할 것이기는 하나 無限의 可能性 있는 勝算은 잡혀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 人類社會의 共通된 心情이다.

예를 들어서 최근 美國農務省은 세계 穀物 備蓄量이 1億 5千 780萬톤으로서 昨年同期에 비해 51%가 增加하였고 近年에 보기 드문 高水準의 備蓄이라고 公開한 바 있기도 하다. 그러나 원래 穀物備蓄이란 數 10日分(62年 95日分, 74年 22日分)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또 이같은 統計는 과히 길지 않는 一定期間 동안의 現象을 捕捉하여 다른 一定期間과 比較하거나 一定時點의 現象과 다른 一定時點의 그것과 對照하는 것이므로 問題의 核心이나 根源의인 分析和 對處에는 決定的인 背景으로 삼을 수 없다.

아무도 食糧節約의 가장 幅넓은 主役을 擔當해 온 것이 세계 各國의 食品工業인데 우리나라 食品工業은 先進開發途上國의 食品工業답게 食糧節約에 크게 寄與해 왔다. 라면, 빵 등 直接的으로 米食과 雜穀食事に 代替하는 率이 해마다 높아져와서 國民 食生活를 改善해 놓은 상태인 것이다. 食品工業의 穀物節約 문제를 좀 더 具體的으로 말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人口의 激增實績과 展望에 눈을 돌려 보고자 한다. 食糧節約이 必要해진 原因이 다름아닌 人口增加에 있기 때문이다.

2. 「供給은 需要를 創造한다」의 再吟味

「供給은 需要를 創造한다」하는 傳統的인 意

義는 物건이란 만듦기만 하면 팔리게 마련이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 供給하는 바의 物건이 需要를 創造할 수 있는 기틀위에서 具體的인 購買力 誘導條件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前提가 붙는다. 加工食品業界는 새로운 需要를 創造하는 供給力 즉 新製品開發에 더욱 힘써야 하겠다. 穀物系食糧의 不足은 그만큼 加工食品의 領域擴大의 素地發生을 뜻하는 까닭이다.

農水産部 發表에 따른 75年中 1人當 穀物消費量이 231kg로서 71년에 비해 5年 동안 6.9%가 減少되었고 對照的으로 同期間中 肉類, 牛乳, 果實等 加工食品의 消費가 늘어났다는 것은 加工食品이 穀物需要에 그 만큼 代替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世界 糧穀增産率에 대한 制約要因은 ①耕地에 限界가 있고, ②氣候에 대하여는 行政力 및 其他의 方法으로 增産을 위한 統制를 할 수 없으며, ③農業生産의 生物學的 性格에 脆弱點이 있어 一定한 季節에만 耕作을 할 수 있고, ④ 價格變動에 따라서 生産要素가 流動的으로 副應하지 못하는 것등을 들 수 있다. 하기는 지금까지의 사실로는 技術의 向上 農地開發資金 등의 國家間 支援, 農家單位로의 農業規模가 段階的인 擴大, 肥料와 農藥의 適期 適當使用, 農機具의 使用普及, 新種子의 研究 發見등에 걸쳐(우리나라에서도), 많은 進展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穀物の 낮은 需要彈力과 加工備蓄

歷史上 主要 飢饉慘劇이 1023年과 1961年까지 (大小의 飢饉은 1000—1885年만도 450回) 16回나 發生하였는데 개중에는 11年間 12年間 등의 長期飢饉이 印度에 있었던가 하면 300萬名(印度·벵갈), 1,000萬名(벵갈 地域)등의

餓死記錄이 後日 사람들의 눈길을 돌리게 하였다. 그리고 70年代에 들어선 後(74年)에도 南部아시아 (主로 印度,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中部)의 異常氣候로 말미암아 約 1,000萬名이 餓死한 事例가 생겼던 것이다.

그리고 史上主要飢餓·死亡의 悲劇을 當한 나라들 (또는 地域)은 8個國에 達하고 있는데 印度가 6회로서 가장 많은 回數이었다

食糧은 원래 需要彈力性이 적은 物品이다. 그리고 變質防止 및 其他를 위한 管理上의 條件難도 적지 않다. 이런 事情만으로도 不意의 事故需要에 對備하는 많은 量의 備蓄은 期待하기가 어려운 實情임을 勘案하여 加工食品으로 보다 長期備蓄이 無難하게끔 技術面의 研究와 이에 依한 量產體制를 갖추어야 한다. 한편 政府單位의 調達購買(調達基金으로의 購買) 및 其他의 加工食品의 備蓄制度도 確立, 또는 擴大되어야 한다는 것을 強調하는 바이다. 이는 物價對策으로도 必要度가 높다. 美國物價動向만 하더라도 昨年 여름의 旱魃과 지난 겨울 以來의 酷寒등 異狀氣候를 原因으로 하는 食品價格의 上昇度가 顯著化(昨年旱魃 관계) 하거나 혹은 兆朕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4. 生活의 科學化·能率化

오일쇼크에 앞선 世界穀價波動이 있는 後食糧 문제의 將來에 대한 사람들의 神經은 날카롭게 곤두 세워졌다.

그리고 ① 綠色革命은 成功的이었다고 歷史的 評價를 받았고 ② 옥수수에 木花를 섞고 거기에 또 콩가루와 아미노酸을 보탠 새 食品이 이미 中南美地域에서 商品化하였다라는 것은 그렇게 驚異의 일 수가 없다. 콩가루, 옥수수 등등의 먹는 물건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③

石油를 대상으로 하는 合成食品의 研究와 海草로부터의 代替食品開發이 상당히 進行中이던 것등등이 모두 귀를 기울이게 하는 더인테 食品工業의 機能을 活用해야만 할 일일 것이다. ④ 한편 農地改革에 대한 關心도 云謂되고 있다. 日本(8·15後 美軍政下)·臺灣·멕시코 이집트가 모두 不在地主를 認定치 않게 되어 增產을 하였다. 그러나 亞細亞·라틴아메리카에는 아직 不在地主가 많이 남아 있고 그 때문인지 生産意欲이 低位水準이라고 傳해진다.

그런데 위와 같은 新食品開發등과 併行하여 食生活의 改善이 時急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近年 아침 食事を 빵食으로 轉換한 家庭들이 많아진 것은 좋은 現象이다. 지금까지와 같은 炊事方式에 依해서 긴 時間을 그 뒷받침으로 飯食의 아침을 墨守하는 것이 이미 現代人의 多様な 時間 속에서는 不合理的하게 되었다. 生活의 科學化·能率化가 이러한 每日치려야 하는 生活秩序에서 부터 具體化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非常時 食品으로 相當量의 加工食品을 備蓄하는 備蓄制度가 各家庭에서도 實行된다면 이는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고 登山과 들놀이등에 炊事器具를 携帶하는 것도 해가 갈수록 어울려져 보이는 맛이 적어지지만 한다. 各種의 加工食品中에서 選好하면 足할상실다.

먹는다는 것은 生理的·經濟的·社會的 등등에 걸쳐 複合的인 必要와 意義를 지니는 것이므로 環境의 變化에 即應하는 刷新이 있어야 하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거창스럽기만한 炊事方式으로의 飯食生活을 언제까지는 계속해야 할 것으로 마치 運命인양 諦念하는 일은 분명 우스꽝스러운 일이다.